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에 대한 일고찰—

최 혜 실*

I. 서

1930년대 모더니즘이 대학 연구는 (1) 비교문학적 접근방법으로
영미 이미지증과의 비교 및 그에 입각한 한국 모더니즘이의 구조분석,
(2) 문학사적 성과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30년
대 모더니즘이 문학은 이국적인 것에 탐닉하는 경박한 ‘모던보이의 모더
니즘’으로서 당시 한국상황에 토대를 두지 못하고 말초적인 기법에 치
중하는 ‘내용없는 문학’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만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방대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전체적인 조망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지금, 모더니즘이 단순한 방법론이 아닌 근대문학으로서의 정
체성(identity)을 갖고 있다는 점, 리얼리즘 연구의 심화를 위해 그 맞
수인 모더니즘이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그것이 30년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산업사회에 상응하는 예술형식의 전자
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30년대 모더니즘을 당시 시대
상황과의 상관관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¹⁾

당시의 모더니즘이 문학이 영·미의 이론도입과 더불어 경성 속에서 작
가들이 겪는 체험내용에 합당한 형식상의 새로운 감각을 결합하려는 시

* 박사과정

1)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한국학보, 1986. 겨울)
박인기, 한국현대시의 모더니즘 수용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87)
김윤식, 이상연구(문학사상사, 1988).

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더니스트들의 평론에서 잘 드러난다.

“모더니즘은 위선 오늘의 문명 속에서 나서 신선한 감각으로써 문명이 먼지인 인상을 붙잡았다. 그것은 현대의 문명을 도피할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는 달리 문명 그것 속에서 자라난 문명의 아들이었다. ……제재부터 위선 도회에 구했고 문명의 끝면이 풍월 대신에 등장했다. 문명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감각, 정서, 사고가 나타났다.”²⁾

“시에 있어서 대상(현실)이 있는 이상, 이 대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 대상을 담은 용기 역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에 와서 현대시의 형태가 조형으로 나타나고 발달된다는 사실을 석유나 지등을 켜든 사람에게 전통의 발명이 등불에 대한 개념에 변화를 주듯이 ‘형태의 사상성’을 통해 조형 그 자체가 하나의 사상을 대변하고……”³⁾

따라서 모더니스트들이 “감각된 현상을 신경부를 통해 그것을 말초부분에 축제해둘” 뿐이며, 현실을 보고 자유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아 인간이 아닌 “활자제조기”일 뿐이라는 임화의 비판은⁴⁾ 역으로 모더니즘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기교주의 논쟁과⁵⁾ “날개”, “천변풍경”을 둘러싼 논쟁⁶⁾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⁷⁾

도시의 조형 자체가 근대의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근대 풍경을 노래함이 곧 근대사상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당대 모더니즘의 주

2) 김기립,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시론(백양당, 1947).

3) 김평균, “나의 시론”(인문평론, 1940. 5).

4) 임화, “담천하의 시단 1년”(신동아, 5권 12호).

5) 임화—박용철의 논쟁으로 나아가기 이전 김기립—임화의 논쟁 참조.

6) 최재서, “티얼리즘의 확대와 심화”(조선일보, 1936. 10)에 대한 백철, 한효, 임화 등의 반박.

7) 기교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제도 속에 침잠해 있는 그 작품에 내재된 집합체의 잠재적 현존이므로 모더니즘이 동시대와 유리된 기교주의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페터워르거, 미학 이론과 문예학방법론, 문학과 지성, 1987). 설사 그들이 자신이 기교주의임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예술작품들은 그 시대의 자신에게조차 무의식적인 역사 서술이므로, 예술가가 전적으로 예술적 재료와의 대결에 집중할 때 한 시대의 사회는 작품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아도르노,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 1987). 따라서 모더니즘은 도시문명제도라는 예술적 재료와 작품파의 관련에서 고찰될 때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193]

요 의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작품과 그 작품을 생산시킨 사회제도⁸⁾로서 1930년대의 경성을 결부시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구명에 있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⁹⁾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모더니즘 시에 이미지즘이 겹쳐되는 것은 영·미 방법론 도입과 함께 그것이 도시체험의 충격을 직접 드러냄, 도시풍물의 가시화에 좋은 방편이 되는 때문인 것이다. 이런 소재와 방법론의 밀접한 관계는 소설에서 더 명백히 나타나는 바, 이 작품에 묘사된 1930년대의 ‘경성공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허구로서 소설의 기능이 의도적으로 무시된 듯이 보일 정도로 사실에 입각하고 있으며, ‘경성공간’ 이야기로 이 소설의 배경이자 내용이자 방법론이 되고 있다.

19세기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깨고 풍경을 불가해한 괴물로 만듭니다. 주체를 수동적인 관조자로 떨어뜨리고 만다.¹⁰⁾ 이런 수동성을 가진 주체를 ‘산책자’(*flâneur*)¹¹⁾라고 하는 바 본고에서는 모더니즘의 기반이 된 경성거리를 추체험하여 그 ‘사회제도’를 고찰, 모더니즘의 존재타당성을 밝히고, 도시체험의 주체로서 ‘산책자’를 모더니즘 소설의 한 전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1930년대 지식인의 ‘도시체험’

1. 경성의 근대화와 루펜—인테리겐자의 산책자화

한성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독립국 수도로서의 통치기능(대외 연결, 변경통제의 기능 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부 지역의 관리

8) 베리 이글튼, 반영이론과 생산이론(까치, 1986), p. 82~90.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문학과 지성, 1980), pp. 64~65.

9) 박태원, 문장사, 1938.

10) 루가치, 역사와 계급의식(거름신서, 1986), p. 249.

11) David Frisby, *Fragments of Modernity*(Polity Press, 1985)

빌터 벤야민, 문예비평과 이론(문예출판사, 1987)

_____, 현대사회와 예술(문학과 지성, 1981)

김용기, *Etude sur la ville baudelarenne*(서울대 석사논문, 1985).

김영우, 벤야민의 문예이론과 알레고리 개념(서울대 석사논문, 1985)

를 맡는 지방적 수도(subnational capital)로 격하됨과 동시에 그 규모도 $\frac{1}{8}$ 로 축소되고 말았다.¹²⁾ 그러나 1930년대에 와서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었고 그 역할은 특히 1937년 중·일 전쟁 직전에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기능 및 식민지 수도 경성의 통치——행정기능도 늘어나는 등, 점차 발전되는 경성부의 현상을 소규모의 도시계획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마련되었다.¹³⁾ 이 영에 의거 조선총독이 조선의 시가지 구역 내에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의 풍치지구 미판지구, 방화지구, 풍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내 기간 도로들을 따라 공간재조직이 한국인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인 주거지역으로서 용산이, 일본인을 위한 편의시설, 관공서, 생필품 판매의 상가로서, 황금정(을지로), 명치정(명동), 장포 천정(소공동), 본정(충무로)이 구획정리되어 경성은 외관상으로 근대 도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화는 한인들의 산업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어서 오히려 구획정리 과정 중, 문물제도의 획기적 개편, 사회시설의 정비, 생활편의 향상 등 긍정적 이면보다는 시민 건강의 퇴폐, 범죄율 격증 및 도시계획령에 의한 구·중소상인의 몰락, 시민부담의 증가, 소시민의 토지상실 등 부정적 측면과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실업자의 격증을 낳았다.¹⁴⁾

특히 지식인의 실업율은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규명의 일환으로 당시 한인 및 일인의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직업인 중 한인은 소산층이 1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노동자(7.07%)와 화이트칼라(1.04%)인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기능공과 화이트칼라가 31.4%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영자로서 9.54%이다. 이상에서 짐작컨대, 일본은 근대적 산업과 직업이 발달하여 계급분화가 제대로 근대화되고 있으나 한인은 노동과 자본이 미분화된 상태여서, 높은 교육열로 일본에 못지 않게 양산된

12) 임덕순, 서울의 수도기원과 발전과정(서울대 박사논문, 1985).

13) 산전용웅, 대경성사진첩(경성출판사, 1927).

14) 김영모, “일제하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아세아문제연구소, 187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195]

한인 지식인 계층은 설 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 의관상으로 근대화 된 서울 거리를 헤매게 되었다.¹⁵⁾

더구나 일제 치하에서 엘리트에의 진입의 기회와 관료총원의 기회가 소수 친일적인 사람들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물질적, 정신적인 면에서 충족감을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 룸펜 인테리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소외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자기의 공상하고 묘사하든 욕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현실을 도피하라고 카페—, 빠—, 레—뷰, 째즈, 에로, 살롱 등을 헤매며 가두로 방황하는 헤카당, 니히리스트”¹⁶⁾의 향락주의는 단순한 빈곤 내지 개인적 취향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대사회적 저항의 성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물질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와 동일시 되는 한국 지식인의 소외현상은 “실업자 모티프”와 “욕살이 모티프”¹⁷⁾가 병치되어 있는 일군의 소설들에서 잘 드러난다.¹⁸⁾

2. 구인회 문학활동의 ‘진목성’이 가지는 의미

구인회는 1933년 8월 15일 이종명, 김유영의 발기로 조직되어 몇 명의 탈퇴와 가입의 과정을 거친 후, 이태준, 김기령, 정지용,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환태, 박팔양, 김상용의 동인을 가졌던 문학단체였다.¹⁹⁾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동인작품들의 월평회²⁰⁾를 자주 가졌고 ‘시와 소설의 밤’이란 회합을 열어, 이태준의 강연, 정지용의 시낭독, 박태원의 소설 강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자²¹⁾ 좀더 발전시켜 “조선신문에 강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²²⁾ 또한 기판지 형태로 40여매의 알짜하나마 화려

15) 위의 글, pp. 623~627.

16) 최진원, “인베리케차론”(조선일보, 1932.3.5).

17) 조남현, 한국 지식인 소설연구(일지사, 1984).

18) 욕살이를 하고 나온 지식인들의 생활은 주로 가두를 방황하여 생활에 소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예컨대, “단총”에 나타나는 일군의 소설들) 따라서 지식인들의 ‘산책자화’는 복잡한 윤리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19) 백철, “신문학자조사”,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인간사, 1961), p. 691. 김시태, “구인회연구”, 제주대 논문집.

20) 김인용, “구인회 월평방청기”(조선문학, 1933.10).

21) B기자, “문단신문”(신인문학, 1934.10).

22) P기자, “예술뉴—스”(예술, 1935.4).

한 표지를 자랑하는 “시와 소설”을 낸 바 있다.²³⁾

실제로 문단에서 활약하는 중진 문인들의 단체였기에 구인회는 많은 비평가들의 주목과 비판을 받았었다. 첫 비판을 가한 백철은 구인회를 “현실적으로 존재할 아무런 의의를 갖지 못하는 무의지과 내지 자유주의 전파”²⁴⁾라 규정하였고, 흥효민²⁵⁾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반동시대의 제 2기적 평연의 정세 밑에서 산출되는 새로운 반동시대의 전위파”로서 카프의 적대세력으로 간주했다. 나아가 박승극은 그들을 신문 학예면 담당인으로 구성되어 문단을 좌지우지하고, 계급성분으로 보아 파시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중간층작가”²⁶⁾로 비판했다. 요컨대 구인회는 성원자체의 무서운 짐재력을 인정되나 대체점인 KAPF에 비해 구심점이 되는 이념 및 실제 활동이 별무한 반동 그룹이란 것이다.

KAPF의 비판에 대한 구인회의 반응은 철저한 무의지의 시인에 있었다.²⁷⁾ 실제로는 꽤 활발한 문학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친목’ 쪽을 더 중시 여긴 것은 당시의 경성체험이 그들의 감각에 더욱 선명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다. 논리적 사고로 문학을 하는 자들의 집단에서, 조직과 이론 투쟁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면, 도회감각으로 문학을 하는 집단에서, 거리를 배회하며 도시를 감각으로 느끼는 일이 문학 자체를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구인회 동인들이 친목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문학 속성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조직 자체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²⁸⁾

그러므로 이태준이 구인회의 기역으로 ‘다방’을 든 것은²⁹⁾ 그 성격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문사 학예란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과 룸펜(박태원, 이상, 김유정) 문인들로 구성된 이들은³⁰⁾ 도심을 배

23) 장계준, “구인회와 ‘시와 소설’”(조선중앙일보, 36.4.7).

24) 백철, “사악한 예원의 분위기”(동아일보, 33.10.1).

25) “1934년도 조선문단”(동아일보, 34.1.4), “조선문단 및 조선문학의 진전”(신동아, 1935).

26) “문예와 정치”(동아일보, 35.7.28). “조선문단의 회고와 비판”(신인문학, 1935.3).

27) 이태준, “구인회에 대한 난해, 기타”(조선일보, 35.8.1). 김기립, “문단불참기”(문장, 40.2).

28) 구인회의 분위기는 담소, 회식 위주의 합평회에서 잘 드러난다.

29) “구인회에 대한 난해. 기타”

회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그들이 매일 만나는 장소가 “낙랑팔라”란 다방이었다.³¹⁾ 이 곳은 30년대 조선 지식인층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시 개성 지방민이었던 김광균의 기억 속에 김기립의 반바지와 동일시되어 ‘모더니즘’의 감각 자체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³²⁾ 구인회 동인들은 이곳을 기점으로 낙원 카페³³⁾, 아서원³⁴⁾을 배회했던 것이다. 그런데 낙랑팔라가 위치한 장포천정 입구는 일본인 거리의 질목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경성 내의 내지인을 위해 형성된 상가로였던 본정의 입구였던 바, 본정은 당시 경성의 은좌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길 양쪽에 내지인의 1류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어, 밤에는 오정목에 달하는 불빛이 쭉 늘어져 있어 지금 보아도 장관의 야경을 이루고 있었다.³⁵⁾ 결국 이곳은 거리의 이름만큼이나 동경과 가까웠던 곳이었다.³⁶⁾ 가장 근대와 가까운 도시였음에도 가장 조선의 현실과 거리가 먼 곳, 구인회 동인들의 도회감각이 당대에 가장 세련됨을 자랑하는 반면 현실을 회피하는 기교주의자란 이중의 평가를 받았던 것도 그들이 경성의 남촌이 가진 속성을 가장 충실히 감각화시킨 때문이다.

이 거리를 선이 긁고 축구감독 같은 건강미³⁷⁾를 지녔으면서도, 반바지 차림에 헬멧 모자를 쓰는 맨디즘을 발휘할 줄 아는 김기립을 필두로 크고 늠름한 몸매에 장방형의 기다란 얼굴, 작은 눈³⁸⁾, 위병을 않아 여드름 투성이지만³⁹⁾ “실크헤트에 연미복을 입고 스틱을 회회 젓는 おつ

30) 구인회 핵심멤버가 박태원, 이상, 김유정이란 것은 이미 상론된 바 있다.
(김윤식, 이상연구).

31) 낙랑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광균, 조용만의 회고를 참조, 박태원의 “페로”에 상술, 단총 1호(1937. 4)의 광고 계재.

32) 김광균, 와우산(범양사, 1985), pp. 78~79.

33) 종로 2정목에 위치.

34) 주소 : 황금정 1181 경성편람(1929, 흥문사), p. 226.

35) 대경성 사진첩, p. 5. 본정 입구 광장 북측에는 르네상스식 철근 화강암 석조건물인 조선은행, 동양 일류의 호텔이라던 조선호텔, 역시 3층의 웅장한 석조건물이었던 경성우편국, 경성부청의 관공서가 있었고, 삼월, 삼월, 삼월, 삼중정, 평촌 백화점들이 지점을 내고 있었다.

36) 예컨대 장포천정은 일본 장군의 이름(서울안내, 1948), p. 45.

37) 이석훈, “속작가인상기”(중앙, 36.5).

38) 이선희, “작가조선의 군상”(조광, 36. 4).

39) 박태원, “작가단편 자서전”(삼천리 문학, 38. 1).

とり한”⁴⁰⁾ 박태원이 갑바머리를 하고, 그 옆에는 검정 두루마기의 옥양 목 동정을 넓적하게 달아 ‘시끌오입장이’⁴¹⁾ 같지만 술만 마시면 다변인 김유정, 텁수룩한 머리로 검은 양복에 흰 구두를 신은 ‘보헤미안’ 이상 이⁴²⁾ 겉고 있다. 시선을 끌만한 웃차림으로 남촌의 거리를 걷고, 다방에서 재담을 주고 받는 행위야말로 ‘조형자체가 사상을 대변하는’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걸맞는 문학행위일 것이다. 군중을 체험하는 행위가 문학기술과 동격을 이루는 구인회의 속성은, 그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드러나는 바, 이 것의 분석이 모더니즘 소설 양식의 한 특성을 이룰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III. ‘경성체험’에서 도출된 “모데로 노로지오—고현학” 의 창작방법

박태원의 독특한 원고집필 방법은 당시 세인들의 가쉽거리로 등장 할 만큼 유명했다.

“요사이 자조 시내 낙랑파——라라는 다짐에서 드나드는데 각금 사람이 많아 모이는 그 다짐 한복판에서 펜을 들고 목상을 하시며 창작을 하신다니 좀 더 씨가 유명해진다면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서 창작을 하실 것이니……”⁴³⁾

“각금 다짐같은 데서 모던 결과 마주앉아 만년필과 씨름하는 박군을 보면 아마도 문단불경기로 연애대서업을 시작한 모양”⁴⁴⁾

박태원 자신도 항상 팔에 대학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 도시의 풍물, 군중의 모습을 적어놓았고, 상상력만으로 소설이 되지 않아 실물을 눈앞에 보기 위해 도심지를 오간다는’⁴⁵⁾ 고백을 한 바 있다. 이 경성 풍물에 대한 성실성——스스로 ‘모데로노로지오——고현학’⁴⁶⁾이라 이름

40) 이석훈, 위의 글.

41) 위의 글.

42)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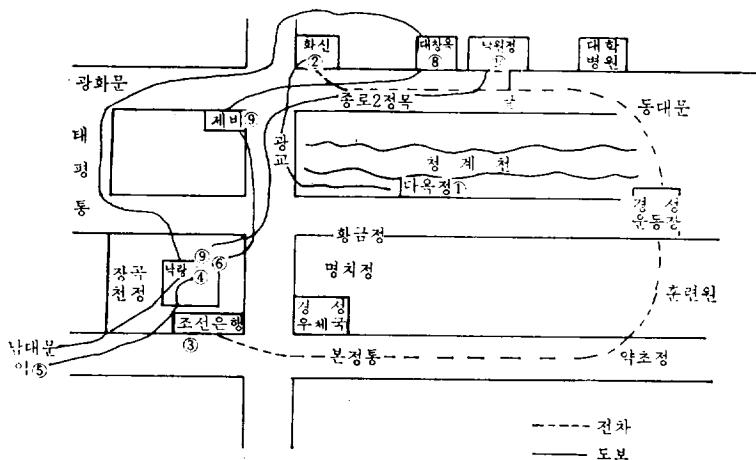
43) C생, “문단 Gossip”(예술, 1935.4).

44) 거암생, “문단총침”(비판, 1936.3).

45) “작가와 진강”(조선일보, 1938.1.18).

46) 위의 글.

불인 방법론의 결산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작가의 분신인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 새벽 2시에 집으로 귀가하는 원점회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부수적 요인인 바,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 거부되고 도시공간 포착의 순간순간 속에 정지되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주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의 편린(*fragment*)들이며 작가는 이 편린들에 과도할 정도의 성실한 표현을 가하고 있다.



첫 출발점인 구보의 집은 광교천변의 다육정에 위치해 있다.⁴⁶⁾ 이곳에서 광교, 화신백화점까지는 (②) 그리 먼 길이 아니어서 구보는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다.⁴⁷⁾ 이 곳에서 구보는 전차를 탄다. 전차는 중요, 대

46) 1934년 현재 그의 주소는 경성 다육정 26번지로 되어 있다(문예가 명부, 1934. 1). 다육정은 이조시대 다방골로 부호들의 거주지였으나 박태원이 작품을 집필할 무렵에는 권번 기생들의 거주지로 변모한 뒤였다. 그의 작품에 카페여급과 기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많은 것도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이리라 본다(서울안내).

47) 화신백화점은 1931년 창립되어 자체의 금운미술공장, 양화공장, 유기공장 등을 가진 6층의 석조건물, 도시의 상가로서 손색이 없었던 곳이었다.(경성

학병원, 경성운동장, 훈련원, 약초정, 본정통을 지나 조선은행 앞에 세워진다. 종로에서 장포천정까지는 산책으로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굳이 먼 거리(소공동)를 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위의 전차궤도는 당시 경성 외곽의 순환선⁴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단시간에 경성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전차의 차장 밖으로 풍경을 관찰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즉 구보의 전차타기는 경성 공간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문학장치였던 것이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보의 여정은 낙랑팔라를 중심으로 한 3회의 도심 산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낙랑에서 집필중 소재가 떨어지면 도심으로 나와 군중과 도시건물을 고찰한 후 다시 낙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되풀이 하는 그의 집필방법과 일치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④→⑤, 낙랑팔라에서 경성역까지. 당시 경성역은 르네상스식 건축으로 웅장함과 우아함을 자랑하던 경성의 대표적 건물이자 하루 일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여⁴⁹⁾ 도심 교통의 상징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철도는 근대화와 식민통치화의 양면적 요소인 바, 이곳은 물자와 문명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몰락한 농민과 도시 실업자들의 집합소라는 명암이 교차하는 곳이었다.⁵⁰⁾ 이곳을 배회하는 지게꾼과 유랑하는 무리, 시골노파의 굳은 표정, 중년 시골신사의 거만함⁵¹⁾ 등은 도시 군중들의 다양한 형태로 이곳이야말로 경성이 갖는 양면성의 집결지가 된다. ‘고독한 산책자’로서 구보는 군중의 익명성에 아연 실색한다. 대도시의 군중은 옆을 스쳐지나가는 타인에게 혹은 차의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아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기로 복계를 떼온 개인들의 집합이다.⁵²⁾ 즉 대도시에서 기술·상업적 발전이 가져다 준 제도의 운용방법을 배움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누리게 된 대중인들이⁵³⁾ 이 편리성 속에 빠져 제도설립의 도덕적 지적 노력은 깨닫지 못하

사진첩, p. 14).

48) 경성편람, pp. 116~117.

49) 경성편람, p. 116.

50) 김영모, p. 628.

51)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 249.

52) 김용기, p. 50.

53) 정문길, 소외론연구(문학과 지성, 1984), p. 27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201]

여 지적 폐쇄적 매커니즘에 빠져버림으로써 서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복제 등의 매커니즘 따위에 안주하는 비도덕적 군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 자기소외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기침체(die Insich-selbstversenbung)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자각을 가진 자들을 ‘산책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박태원은 왜 근대 도회의 문물을 보데로노로지오의 방법으로 드러냈으며 그것이 성공을 거둔 것일까? 그것은 근대적 대도시가 갖는 속성 때문이라 보아진다. 도시 이전의 세계에서는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비춰지는 세계였던 반면, 도시의 발달은 개인과 세계사이의 균형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다. 거대한 군중의 형성은 개인과 타자간의 소통불가능성을 놓게 했다.⁵⁴⁾ 또한, 도시의 환경 가운데서의 삶이 초래한 두개의 근본감정, 즉 한편으로 남이 봐주지 않는 데서 혼자 있다는 느낌과 다른 한편 번잡한 교통과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인상이 가장 섬세한 기분과 가장 신속한 자극의 교체를 결합시키게 하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도시생활에서는 연속적 세계관보다, (지금 여기)라는 일시적 순간성(공간성)이 강조되고 청자보다는 시각이 강조되는 것이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한 산책자가 느끼는 도시 공간체험의 단상들(fragments)에 대한 충실햄 고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V. 근대 교통제도와 ‘의식의 흐름’ 기법과의 관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어떤 극적 구성 및 주요 사건이 없이, ‘구보가 경성의 도심지를 걸으면서 과거를 회상’한다는 단순한 일상사의 일로 구성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독자에게 수용되는 신선한 충격을 부정할 수 없는 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텍스트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의 모티프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모티프의 두 요소인 ‘도시체험’과 ‘과거회상’은 항상 동일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54) 김용기, p.28~42.

55)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창작과 비평, 1984), p.177.

예컨대, 광교 연변에서 구보는 지나가는 자전거의 경적소리를 듣고,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던 일을 회상하게 된다.⁵⁶⁾ 도심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긴 회상을 하는 식의 구성은 작품 전체에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이 작품은 자극——반응의 편린들(fragment)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극	연상	반응
1. 자전거	귀	병원에 갔던 일 회상
2. 행인	눈	병원에 갔던 일 회상
3. 전차노선도의 교외명	한적함	자신의 고독
4. 대학병원 건물		연구실에서 정신병 공부하는 친구
5. 승객	혼담	생활, 행복, 과거 연애 회상
6. 카페손님		대인관계에 대한 미로
7. 행인의 건장함	자신의 몸의 쇠약	어린 시절 독서체험
8. 어린애 울음	쇠약의 자신	벗의 애정행각 회상
9. 전보배달자전차	편지	집에서 편지 받을 어머니 회상
10. 경성우체국		좋은 소식
11. 여급의 이름		여급모집광고를 보고 온 아낙네

도표 왼쪽의 자극의 종류를 살펴 볼 때, 군중(2, 6, 7, 8, 11), 교통기관(1, 3, 9), 건물(4, 10)의 세 요소로 범주화 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세 요소는 도시를 이루는 대표적 존재들이다. 결국 구보는 가장 도시적인 것들의 자극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는 산책자로, 도심에서 구보의 반응양상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대표적인 극복의 방법으로 보아져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형성이 경험의 구조에 끼친 영향은 한마디로 경험(Erfahrung)으로부터 체험(Erlebnis)으로의 전환이다.⁵⁷⁾ 경험이란 개인적인 생활에서 뿐 아니라 집단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전통의 문제이며,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되어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지식이 기억 속에 수렴된 산물이다.⁵⁸⁾ 그런데 현대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 문명은 한 개인이

56) p. 228~229.

57) 김영옥, p. 42.

58) 문예비평과 이론, p. 187.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203]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하고 복잡한 양태를 가져, 개인에게 구체적 사실이 되지 못하고, 모르는 그 무엇, 무의식적 잔상의 형태로만 감지될 뿐이다. 경성 공간을 거닐 때, 구보는 대중교통수단과 군중, 석조로 된 빌딩들을 결코 종합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 예컨대 군중의 성장배경, 성격, 능력들을 결코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별성이 종합화되어 보편적 체계로 파악되지 못하고, 막연한 냉여리로서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 사물을 대할 때 인간은 큰 충격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경험을 폐기하고 체험에 안주해 버린다. 작품에서 본다면, 자전거를 탄 사람은 기계적으로 교통신호와 행인들을 피해 폐달을 굴리고, 행인들은 저마다의 용무를 향해 잘 짚을 가지고 있으며, 승객들은 정확히 행선지에 하차하고 있다. 그들의 의식속에는 교통제도의 복계가 잔상의 형태로 남아 행인은 감각을 통해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의식상태를 베르그송은 기계적 신체적 기억이라 정의하고 있다.

반면 구보는 통일적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즉 생존적 필요에서의 체험의 인정과 소설가로서 느끼는, 외부자극에 대한 자신의 전적 개방, 즉 경험에 대한 갈증이란 양극 사이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구보가 자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면 광인이 되는 것이고 충격의 수용을 거부하면 일상인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다. 광인이 되느냐 일상인이 되느냐는 양극의 기로에 서있는 구보의 중간적 위치는 작품 속에서 ‘고독’과 ‘행복’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일찌기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께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누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⁵⁹⁾

구보는 문명화된 대중인의 규범적인 일상성에 융합됨이 없이 대도시

59) p. 233.

의 충격 자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 자세는 펠연적 으로 군중과의 격리를 수반하게 되며 진실을 찾으려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내성으로의 침잠이란 폐쇄회로에 갖하게 하고 만다. 이에 구보는 다시 일상인의 ‘행복’을 생각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라는 결혼이란 행복, 화신상회의 젊은 가족들의 행복, 가난한 소녀의 웃과 시계에 대한 욕구, 옛 동창의 속물근성 등은 산업적 발전이 가져다 준 제도의 운용방법을 배움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있으나, 그 제도 속에 빠져 그것의 근본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여 지적 폐쇄성 속에 빠져버린 평균인⁶⁰⁾의 행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보는 광적인 고독에 집착하지도 않고, 일상성 속으로 추락 하지도 않는 중간지점에서 거리를 산책하게 된다. 결국 그 지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시의 익명성에 맞서, 도시의 자극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으로 풀이하려는 ‘회상’의 반복이었다.⁶¹⁾ 그러나 ‘회상’이 경험 회복의 완전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V. 결

1930년대 한국 문단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은, 임화, 김기립의 기교주의 논쟁에서 자유하는 인간 대 감각하는 인간과 임화·최재

60) 소외론 연구, p. 25.

61)

	Reik	Bergson	프루스트
체험	Erinnerung (기계적 기억)	memoire de l'intelligence (이지적 기억)=memory	memoire volontaire(과거의 흔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정보)
경험	Gedächtnis (종합적 기억)	memoire pure(순수한 기억)=remembrance	memoire involontaire(감각의 매개를 통해 현재화가 가능한 기억)

일상인은 체험의 기계적 기억을 하는 반면, 구보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종합의 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런 주인공의 정신적 양태는 프루스트가 무의지적 기억의 표현이라 명명했던 ‘의식의 흐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서의 “날개”, “천변풍경”에 대한 논쟁에서 주체성이 제거되어 있다는 부정적 평가대 리얼리즘의 새로운 기법 제시라는 긍정적 평가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대립은 ‘역사의 객체 및 주체’로서 인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얼리즘 이론과 ‘파괴에 앞서 긍정적 계기를 보존하는 인간’ 제시를 주장하는 모더니즘 이론과 대응되는 것이며, 문학이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며 끝없이 미래의 유토피아를 제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현실의 진단과 부정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리얼리스트에게 있어서 현대 도시생활의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감각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의 ‘전체성’이 파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음울한 지표인 반면 모더니스트에게서 그것은 대상과 경험에서 aura를 벗겨내는 충격적 경험들로 비추어 진다. 즉 모더니스트들은 도시화의 불협화음을 화음적인(constant) 유토피아에 대비시켜 그것의 부재에 대한 정직한 확인을 함으로써 그 약속을 살려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즘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이상적 인물로, <문제적 개인>이 나타남에 비해, 모더니즘에서는 ‘현재의 파편들 속에서 과거의 진실을 풀어 맞추려고 노력하는 자’, ‘역사의 천사’인 <산책자>가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분석, ‘산책자’로서 구보를 제시함으로써 당대 리얼리즘 소설에 반하는 인물유형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 ‘산책자’의 기반이 되는 당대 지식인의 생활사 및 작품의 소재이자 방법론의 문헌이 되고 있는 구인회 동인들의 경성체험을 검토했고, 작품전체의 도회감각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한 박태원의 “모데로 오로지오—고현학”의 창작방법 및 도시의 제도와 의식의 흐름 기법과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 보았다. 요약한다면, ‘의식의 흐름’은 근대인의 도회풍물에 대한 대응양상, ‘산책자’의 정신구조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1930년대 경성이 과연 모더니즘이 기반이 될 만큼 도시 문명화 되었는가가 문제시 된다. 이 한계는 30년대 말 모더니즘의 기반이 상실되어 언어의 말초화로 타락될 우려를 표명한 김기림에 의해 시인된 바 있었다. 특히 작품내에서 각자가 제시한 도시의 면모들이 경성의 기반이 아닌, 동경에서 차용된 관념들의 접합인 경우가 눈에 띈다.

충분한 도시문명의 성숙 없는 모더니즘의 밀고감은 외국 문명의 모방 내지 한 개인의 맨디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실제로 30년대 모더니즘의 결파이기도 하나, 우리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오는 경성공간이 현실적으로는 당시 조선의 도시공간의 최대치 이자, 그 공간체험의 소설화가 성립될 수 있는 도시적 기반의 최소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점점에서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니 박태원이 더욱 정치하게 모더니즘 작품을 이루지 못하고 통속화된 형태인 “천변풍경”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본문 참조

2. 국내논자

김광균, 와우산, 범양사, 1985.

김시래, 「구인회 연구」, 제주대 논문집, 9.

김영모, 일제하의 민족 생활사,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1.

김영옥, 「벤야민의 문예이론과 알레고리 개념」, 서울대 석사논문, 1985.

김용기, 「Etude sur la ville baudelarienne」, 서울대 석사논문, 1985.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박인기,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 수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7.

백관수, 경성편람, 흥문사, 1925.

백성기, 서울안내, 평화당, 1947.

백 철, 신문학 사조사, 백양당, 1949.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 한국학보, 1986, 겨울.

임덕순, 「서울의 수도 기원과 발전 과정」, 서울대 박사논문, 1985.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 1984.

조남현, 한국 지식인 소설 연구, 일지사, 1984.

조연현, 한국 현대 문학사, 인간사, 1981.

3. 국외논자

Arnold Hauser(백낙청, 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7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flâneur*)’ 연구 [207]

- David Frisby, *Fragments of Modernity*, Polity Press, 1985.
- Geory LuKacs(박정호, 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86.
- Michel Jeraffa(이동렬 역), 소설과 사회, 문학과 지성, 1880.
- Terry Eagleton(이경덕 역),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 Walter Benjamin(이태동 역),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1987.
- _____ (차봉희 편역), 현대사회와 예술, 문학과 지성, 1981.
- 山田勇雄, 大京城寫眞帖, 京城出版社, 1930.